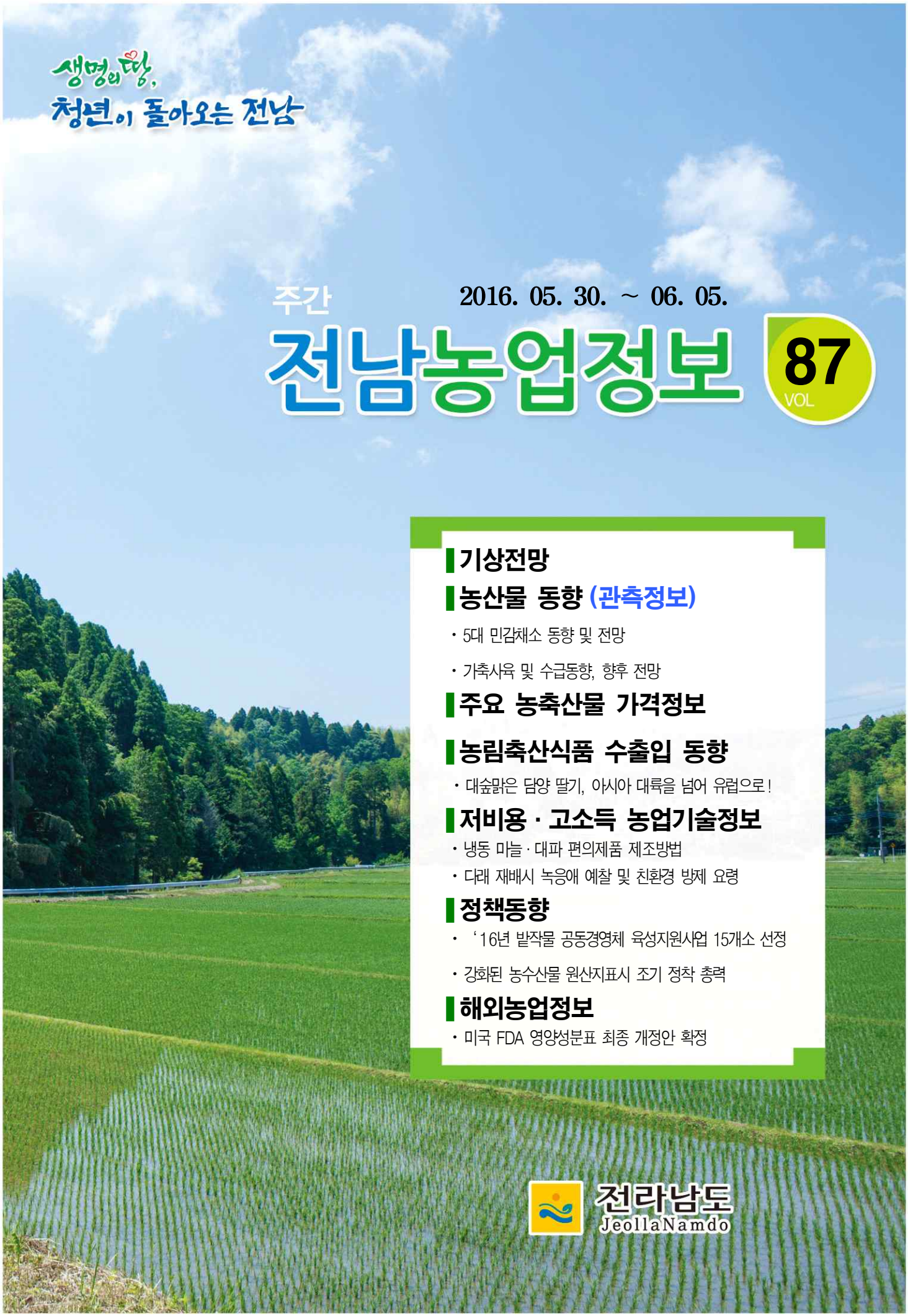


주간

2016. 05. 30. ~ 06. 05.

전남농업정보 87 VOL

기상전망

농산물 동향 (관측정보)

- 5대 민감채소 동향 및 전망
- 가축사육 및 수급동향, 향후 전망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대숲맑은 담양 딸기, 아시아 대륙을 넘어 유럽으로!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냉동 마늘 · 대파 편의제품 제조방법
- 다래 재배시 녹응애 예찰 및 친환경 방제 요령

정책동향

- '16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15개소 선정
- 강화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조기 정착 총력

해외농업정보

- 미국 FDA 영양성분표 최종 개정안 확정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농촌진흥청, 텍사스 A&M 대학 갈등 및 개발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 미국 FDA 영양성분표 최종 개정안 확정

▸ 해외 곡물시장 동향 '2016. 05. 30.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변화 없는 수준에서 마감함.
- 옥수수 :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 의하면 미국의 3일간 휴일에 앞서 미국 공급에 대한 수출 수요와 스퀘어 포지션으로 인해 1% 이상 상승하였음.
- 대두 : 미국산 대두의 선물가격은 긴 미국의 연휴 주간에 앞서 매도커버와 스퀘어 포지션으로 인해 금요일 상승하였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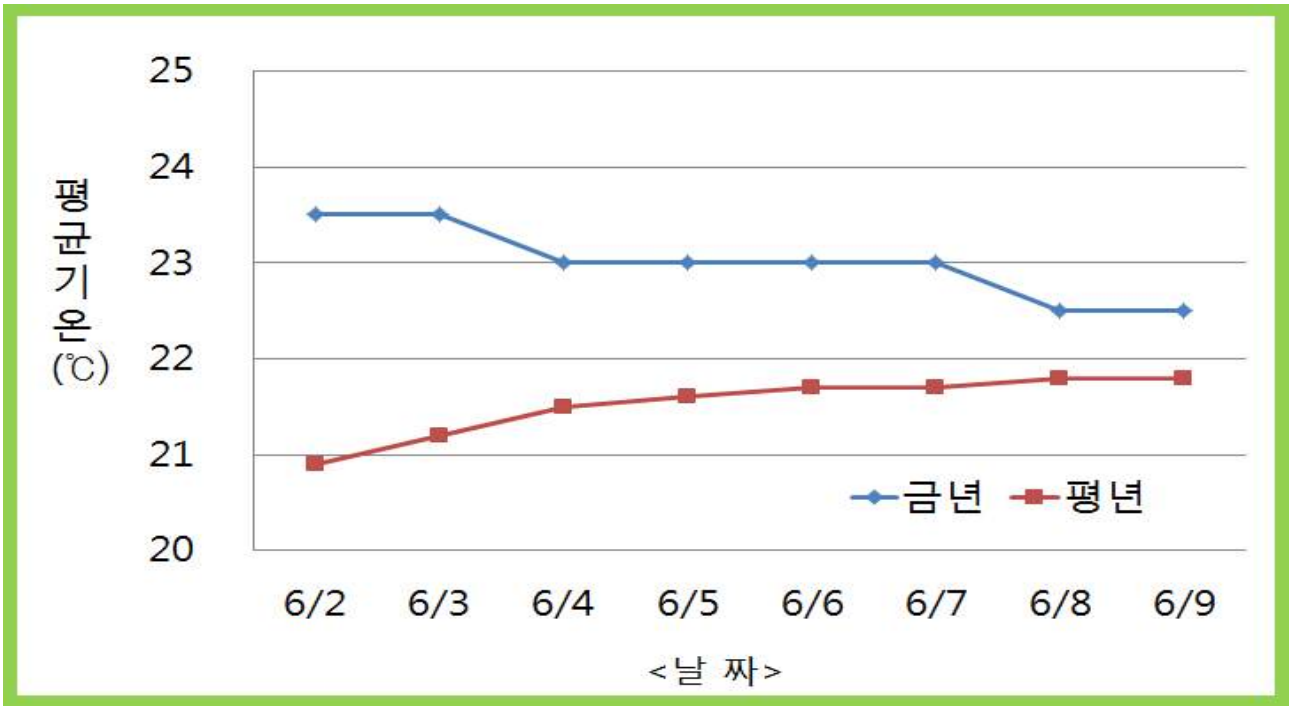
▸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2016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개최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3.0	21.5	1.5	28.9	27.4	1.5	17.1	16.6	0.6	3.5
6. 02.(목)	23.5	20.9	2.6	30.0	27.0	3.0	17.0	15.7	1.3	4.0
6. 03.(금)	23.5	21.2	2.3	30.0	27.1	2.9	17.0	16.1	0.9	3.9
6. 04.(토)	23.0	21.5	1.5	28.0	27.5	0.5	18.0	16.4	1.6	3.0
6. 05.(일)	23.0	21.6	1.4	29.0	27.6	1.4	17.0	16.5	0.5	2.3
6. 06.(월)	23.0	21.7	1.3	29.0	27.6	1.4	17.0	16.7	0.3	2.7
6. 07.(화)	23.0	21.7	1.3	29.0	27.5	1.5	17.0	16.9	0.1	3.3
6. 08.(수)	22.5	21.8	0.7	28.0	27.4	0.6	17.0	17.1	-0.1	4.1
6. 09.(목)	22.5	21.8	0.7	28.0	27.3	0.7	17.0	17.2	-0.2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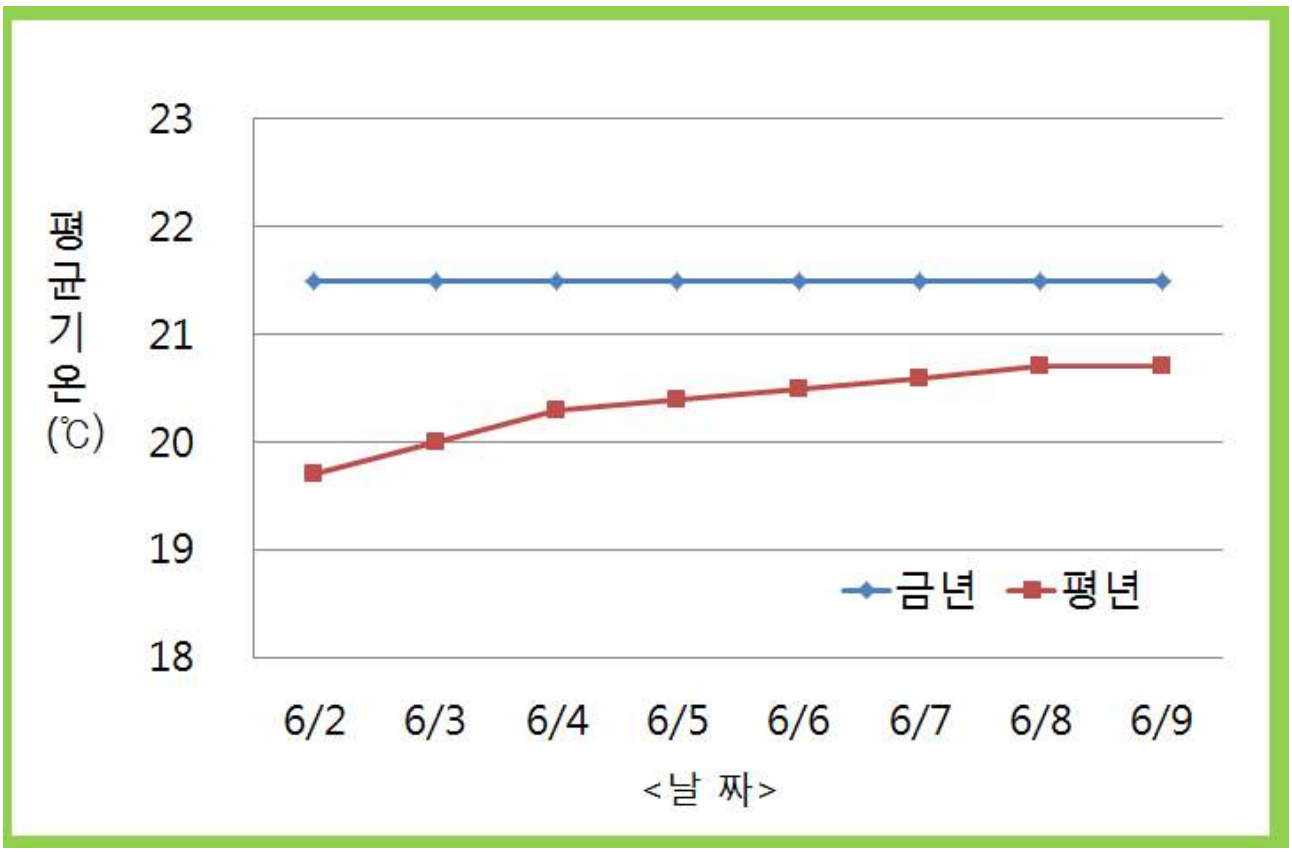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1.5	20.4	1.1	25.9	25.4	0.5	17.1	16.6	0.5	3.4
6. 02.(목)	21.5	19.7	1.8	26.0	24.9	1.1	17.0	15.8	1.2	3.7
6. 03.(금)	21.5	20.0	1.5	26.0	25.2	0.8	17.0	16.2	0.8	3.5
6. 04.(토)	21.5	20.3	1.2	25.0	25.5	-0.5	18.0	16.4	1.6	2.5
6. 05.(일)	21.5	20.4	1.1	26.0	25.6	0.4	17.0	16.5	0.5	2.6
6. 06.(월)	21.5	20.5	1.0	26.0	25.5	0.5	17.0	16.7	0.3	3.0
6. 07.(화)	21.5	20.6	0.9	26.0	25.5	0.5	17.0	16.9	0.1	3.3
6. 08.(수)	21.5	20.7	0.8	26.0	25.4	0.6	17.0	17.1	-0.1	4.1
6. 09.(목)	21.5	20.7	0.8	26.0	25.3	0.7	17.0	17.2	-0.2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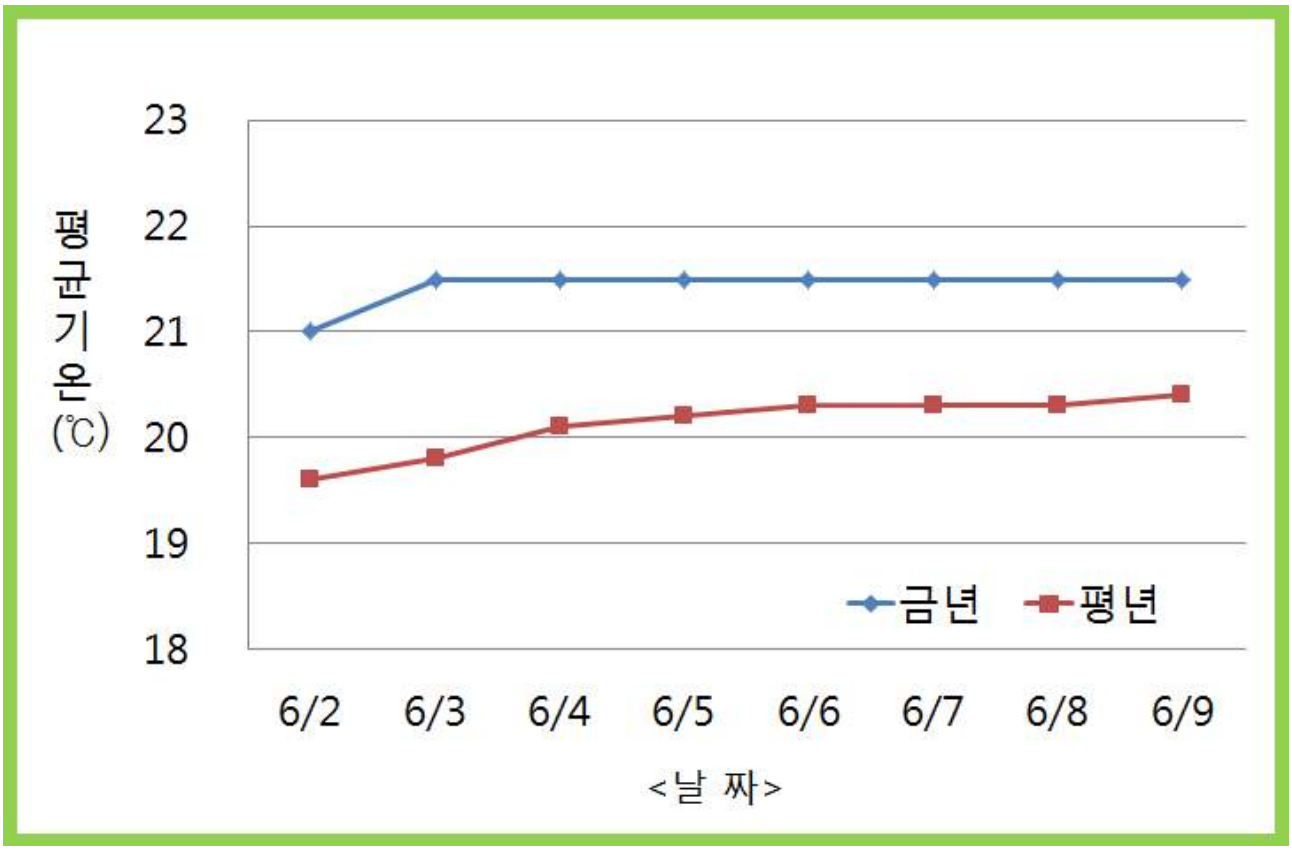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1.4	20.1	1.3	24.9	23.9	1.0	18.0	17.2	0.8	3.8
6. 02.(목)	21.0	19.6	1.4	25.0	23.4	1.6	17.0	16.5	0.5	4.7
6. 03.(금)	21.5	19.8	1.7	25.0	23.6	1.4	18.0	16.8	1.2	4.4
6. 04.(토)	21.5	20.1	1.4	24.0	23.9	0.1	19.0	17.1	1.9	3.4
6. 05.(일)	21.5	20.2	1.3	25.0	24.2	0.8	18.0	17.2	0.8	2.6
6. 06.(월)	21.5	20.3	1.2	25.0	24.0	1.0	18.0	17.3	0.7	2.9
6. 07.(화)	21.5	20.3	1.2	25.0	23.9	1.1	18.0	17.5	0.5	3.6
6. 08.(수)	21.5	20.3	1.2	25.0	23.9	1.1	18.0	17.6	0.4	4.3
6. 09.(목)	21.5	20.4	1.1	25.0	23.9	1.1	18.0	17.6	0.4	4.4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산물 동향(관측정보)

주요 농축산물 주간 가격동향 ('16. 05. 20. 농촌진흥청)

❑ 5대 민감채소 동향 및 전망 (aT 도매가격 기준)

○ 배 추 (10kg)	(동향) 시설 및 터널봄배추 출하로 전주 대비 **약보합세**(11,222→10,556원) (전망) 시설출하 마무리 및 터널봄배추 작황부진으로 **상승 전망**
○ 무 (18kg)	(동향) 저장무 성출하 및 소비 부진에 따른 **약보합세**(19,663→17,567원) (전망) 시설봄무 출하에 따른 전주대비 **약보합 전망**
○ 건고추 (600g)	(동향) 단경기 소비증가 요인 부재로 **약보합세**(7,200→7,120원) (전망) 소비증가 요인이 없고 재고가 충분하여 **약보합세 전망**
○ 마 늘 (1kg)	(동향) 국내산 재고감소로 공급량이 적어 **강보합세**(6,105→6,300원) (전망) 재고부족으로 햇마늘 출하(6월 상) 전 **강보합세 전망**
○ 양 파 (1kg)	(동향) 강우 등으로 시장반입량 변동이 커 전주대비 **상승**(586→630원) (전망) 조생종 출하가 이어져 **약보합세 전망**

❑ 기타 채소류 주요동향

○ **(오름세)** 상추·미나리

- 상추는 지역축제 등으로 요식업소 등의 쌈채소 수요증가, 시금치는 수경재배 작물로 우천과 강풍으로 출하작업 지연

○ **(내림세)** 토마토 등 과채류, 붉은고추 등

- 과채류 소비분산 및 대체 수입과일(체리·오렌지 등) 유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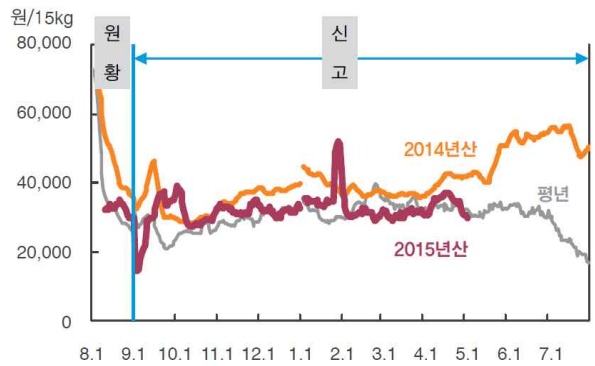
❑ 과수 주요동향

○ **(오름세)** 사과는 경북지역 출하량 조절, 배는 전년도 생산량 감소

* 출처 : 농촌진흥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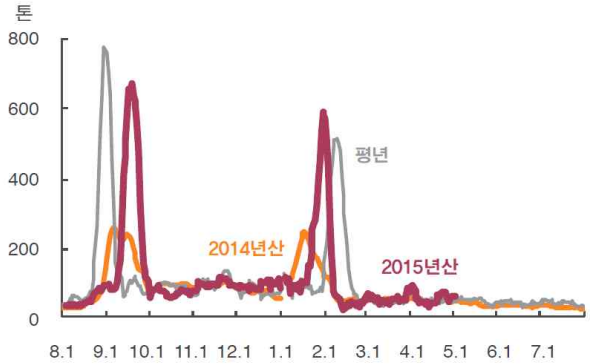
배 동향 및 향후 전망

❑ 일자별 배 도매가격(상품)



주: 평년은 2010~2014년산 자료 중 최대최소 제외한 평균
자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일자별 배 반입량



자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5월 이후 출하량 전망

단위 : 천 톤, %

	2015년산	2014년산	증감률
출하량	23.4	28.2	-17.3

❑ 배 동향 : 4월 배 가격 전년보다 높아

○ 4월 신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반입량이 적어 상품 15kg 상자에 3만 4천원(중품 2만 3천원)으로 전년보다 4% 높고, 평년보다 15% 낮았다.

❑ 배 출하 : 5월 이후 출하량은 전년보다 17% 감소 전망

○ 2015년 8월 ~ 2016년 4월의 배 출하량은 생산량 감소로 인해 전년보다 14% 적은 21만 5천톤 수준으로 추정된다. 5월 이후 출하량도 저장량이 적어 전년 동기간 보다 17% 감소한 2만 3천톤으로 전망된다.

○ 현재 저장배의 경도는 전년보다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가뭄으로 과실비대가 원활하지 않아 수확을 늦게 한 경우 바람들이과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 배 가격 : 5월 배 가격 전년보다 높을 전망

○ 5월 신고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적어 전년(3만 3천원)보다 높은 상품 15kg 상자에 3만 3천 ~ 3만 6천원으로 전망된다.

❑ 배 월별 도매가격

단위 : 원/15kg

		2015년					2016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원황	신고										
2015 년산	상품	32,358	27,995	30,762	32,306	31,825	35,420	31,640	31,039	34,112			
	중품	25,251	18,033	21,743	21,703	21,103	24,502	22,364	21,685	22,534			
2014 년산	상품	37,123	25,299	25,876	28,578	31,731	30,497	33,774	33,651	32,883	31,592	31,813	22,902
	중품	29,794	18,888	20,231	22,159	23,668	23,254	24,624	23,875	23,171	21,384	21,567	13,086
평년	상품	42,976	37,380	28,981	35,155	38,058	41,659	36,581	36,198	40,266	44,281	53,397	52,735
	중품	34,020	25,317	22,737	25,234	26,965	27,754	27,499	26,469	28,799	29,413	36,849	29,449

주: 평년은 2010~2014년산 자료 중 최대·최소 제외한 평균
자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배 면적 : 올해 재배면적 전년보다 3% 감소 추정

○ 배 재배면적은 2000년 2만 6천ha 이후 농가 고령화와 도시개발 등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올해 재배면적도 전년보다 3% 감소한 1만 2,320ha로 추정된다.

○ 성목면적은 전년에 이어 3% 감소한 반면, 유목면적은 신규식재 증가로 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역별로는 경기·강원과 충청지역이 전년보다 각각 2, 4% 감소하고, 호남지역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남지역은 전년(8% 감소)에 이어 재배면적이 5%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어 재배면적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품종별로는 신고와 원황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반면, 국내육성 배 보급사업과 품종다변화를 위한 시도로 신품종(신화·화산·만풍·추황 등) 식재가 늘면서 기타 품종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품종으로 고접갱신도 상당히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 지역별 재배면적

단위 : ha, %

	경기·강원	충청	호남
2016년	2,684	2,784	4,154
2015년	2,748	2,909	4,168
비중	21.7	23	32.9
증감률	-2.3	-4.3	-0.3

주 : 제주는 호남에 포함함
자료 : 통계청(2015년), 농업관측센터 4월 29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품종별 재배면적

단위 : ha, %

	신고	원황	기타
2016년	10,209	713	1,401
2015년	10,544	732	1,388
비중	83.3	5.8	11
증감률	-3.2	-2.6	0.9

자료 : 통계청(2015년), 농업관측센터 4월 29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배 개화 : 개화시기 전년보다 빠르고, 생육 양호

○ 올해 배 개화시기는 봄철 기온이 높아 전년보다 평균 3~4일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인 개화상태는 저온피해가 심했던 전년보다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화 중 강우가 다소 있었으나 수정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결실이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금년 배 개화시기

단위 : %

	빠름	비슷	늦음
전년대비	74.9	19.5	5.5
평년대비	85.8	10.0	4.1

자료 : 통계청(2015년), 농업관측센터 4월 29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금년 배 개화상태

단위 : %

	양호	비슷	불량
전년대비	80.1	17.2	2.7
평년대비	77.8	19.5	2.7

자료 : 통계청(2015년), 농업관측센터 4월 29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가축사육 및 수급동향, 향후 전망

– 한우 가격안정을 위해 조기출하 유도 등 수급안정 방안 추진 –

❑ 가축사육 및 수급동향

○ (사육마릿수) 2016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1분기(3월)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하여 축종별로 한·육우와 젖소는 사육마릿수가 줄어들고 돼지와 닭은 늘고 있는 추세임

- 한·육우 사육마릿수는 2,596천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63천마리 감소(△2.4%)하였고, 젖소도 원유생산량 감축을 위해 사육두수 감축을 진행함에 따라 16천 마리 감소(△3.8%)한 409천마리로 조사됨

- 돼지는 10,315천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344천마리 증가(3.4%)하였으며, 산란계는 1,300천마리 증가(1.9%)한 70,177천마리, 육계는 3,792천마리 증가(4.6%)한 86,541천마리임

○ (축산물 공급 및 가격) 축종별 사육마릿수 증감에 따른 출하물량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월 상순 가격은 한우는 크게 상승, 돼지와 닭은 하락

- (한우) 1~4월 한우 출하물량은 259천마리로 전년보다 19.4% 감소했으며, ‘16.5월 상순 농가 수취가격(600kg기준)은 6,586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3% 상승

- (돼지) 5월 현재까지(1~18일) 돼지고기 평균가격은 4,815원/kg으로 공급량 증가 등의 영향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16.2% 하락

- (육계) 출하물량 증가로 '16.5월 현재(상순) 닭고기 평균가격은 1,043원/kg으로 전년(1,486)대비 29.8% 하락, 소비자 가격은 5,154원/kg으로 13.8% 하락

❑ 향후 전망(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우는 사육마릿수와 도축마릿수 감소로 가격수준이 당분간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돼지와 닭은 공급이 증가하여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

- (한우) 암소와 거세우 출하대기 물량이 감소하여 6~8월 도축마릿수는 전년 동기간(226천두)보다 14.5% 감소한 194천두로 전망되며, 1등급 도매가격은 전년(17,476원)보다 상승한 18,000~20,000원/kg (645~714만원/생체600kg)으로 예상

- (돼지) 6월 사육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2.8~4.8% 증가한 1,030~1,050만 마리로 전망되며, 출하량은 사육마릿수 증가에 따라 1,246천두로 증가(전년 대비 1.8%)하고 가격은 전년보다 낮은 5,000~5,300원 수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

- (닭) 민간자율감축으로 6월부터 도계마릿수는 전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지가격은 '15년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수요 감소분의 회복 등 소비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 동월 대비 2.1% 낮은 1,300~1,500원 수준 예상

❑ 가격 및 수급안정 추진 방향

○ (한우) 단기적 출하물량 확대를 위해 거세우 조기(30개월 미만) 출하를 유도하고 조기 출하비를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고정수요 물량인 군납의 일정부분을 닭고기 및 계란으로 대체하여 시중 유통량을 늘리고,

-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한우고기 공급과 가격유지를 위한 목표 사육마릿수를 설정하고, 이력제 정보와 연계한 관측모델을 개발하여 전망의 정밀성을 높이고 분기·월별 사육두수 및 가격에 따른 조치사항을 체계화

○ (돼지) 한돈팜스를 활용한 양돈농가의 사육·생산·출하 정보수집 및 분석을 통해 수급상황 모니터링을 강화

○ (닭) 6~8월 하절기 출하물량 감소를 위해 병아리 렌더링, 냉동비축 등 민간자율적 공급량 감축 추진

- 시중에 유통중인 닭고기(1백만수)를 구매하여 냉동하고, 병아리를 렌더링(7백만수)하는 등 6월 출하물량의 10%정도를 감축하여 산지 가격을 생산비(1,339원/kg) 이상으로 유지

- 농협, 양계육계협회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민간자율적 수급조절 및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행사 추진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6. 05. 30. 기준/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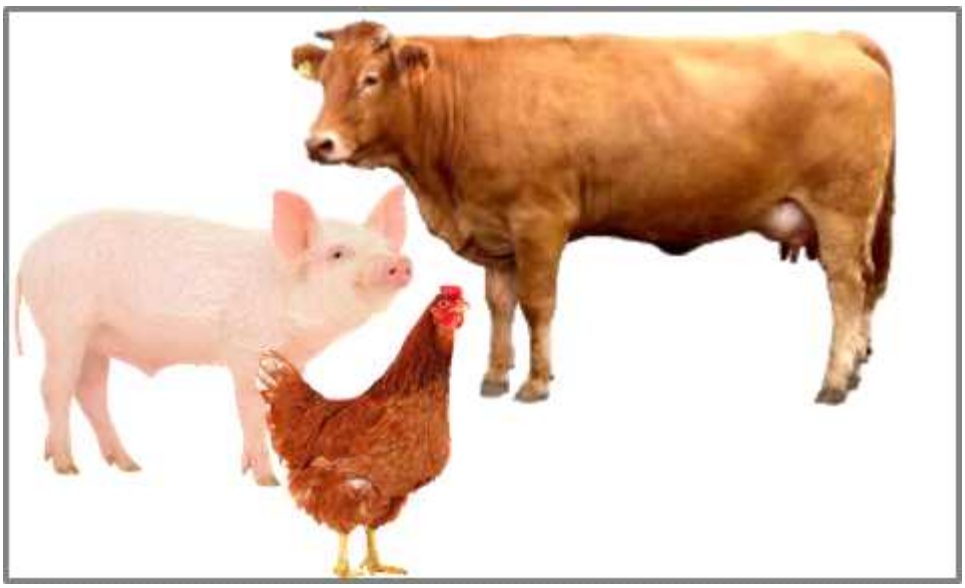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5/30)	1주일전 (05/2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작물	쌀(일반계)	20kg	36,200	36,200	36,200	39,800	41,467	▼ 9.0	▼ 12.7
	콩(백태)	35kg	150,000	150,000	150,000	139,000	186,133	▲ 7.9	▼ 19.4
	고구마(밤)	10kg	30,800	31,200	30,500	30,200	30,467	▲ 2.0	▲ 1.1
	감자(수미)	20kg	38,200	41,000	28,350	45,700	30,807	▼ 16.4	▲ 24.0
채소류	배추(봄)	1kg	880	1,140	1,415	915	466	▼ 3.8	▲ 88.8
	양배추	10kg	11,200	13,400	12,100	11,625	7,282	▼ 3.7	▲ 53.8
	오이(다다기계통)	10kg	11,333	10,333	15,708	12,667	15,003	▼ 10.5	▼ 24.5
	애호박	8kg	10,400	11,200	12,100	8,800	12,547	▲ 18.2	▼ 17.1
	토마토	10kg	16,200	16,400	23,450	23,000	20,293	▼ 29.6	▼ 20.2
	당근	20kg	32,000	33,000	27,600	30,000	32,293	▲ 6.7	▼ 0.9
	건고추(화건)	60kg	710,000	710,000	720,000	820,000	832,000	▼ 13.4	▼ 14.7
	풋고추	10kg	40,400	37,200	43,400	48,400	39,947	▼ 16.5	▲ 1.1
	마늘(깐마늘)	20kg	88,333	88,333	88,333	-	77,500	-	▲ 14.0
	양파	20kg	15,000	13,800	25,000	14,250	13,937	▲ 5.3	▲ 7.6
	대파	1kg	2,110	2,220	2,283	2,475	1,637	▼ 14.7	▲ 28.9
	파프리카	5kg	19,400	15,200	23,150	29,200	22,093	▼ 33.6	▼ 12.2
	멜론	8kg	28,800	27,400	25,050	28,650	36,604	▲ 0.5	▼ 21.3
	방울토마토	5kg	15,200	14,400	17,225	17,600	15,677	▼ 13.6	▼ 3.0
	수박	1개	14,800	15,600	15,750	15,650	15,003	▼ 5.4	▼ 1.4
과일류	사과(후지)	10kg	37,000	37,000	37,000	45,200	53,698	▼ 18.1	▼ 31.1
	배(신고)	15kg	44,400	44,400	44,000	41,200	50,667	▲ 7.8	▼ 12.4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5/30)	1주일전 (05/2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27,000	527,000	529,000	532,000	563,333	↓ 0.9	↓ 6.4
	느타리버섯	2kg	12,600	13,600	13,500	13,600	11,923	↓ 7.4	↑ 5.7
	새송이버섯	2kg	7,600	8,000	8,300	8,550	8,157	↓ 11.1	↓ 6.8
축산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532	7,472	7,350	6,631	6,097	↑ 13.6	↑ 23.5
	돼지고기(삼겹살)	100g	2,063	2,031	1,863	2,334	2,081	↓ 11.6	↓ 0.9
	닭고기	1kg	5,690	5,333	5,123	5,209	5,627	↑ 9.2	↑ 1.1
	계란(특란)	30개	5,394	5,367	5,028	5,980	5,787	↓ 9.8	↓ 6.8
	우유	1리터	2,549	2,549	2,549	2,548	2,382	0.0	↑ 7.0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 금주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가격정보는 도내 업무행사로 인해 다음 주 제공합니다.



4. 전남 시·군 농정 동향

전남도,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선정

– 밥맛, 품질, 외관품위, 현장평가 등 통해 확정 –

○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에 함평 '나비쌀', 보성 '녹차미인보성쌀', 영암 '달마지쌀골드', 담양 '대숲맑은쌀', 나주 '드림생미', 고흥 '수호천사건강미', 장흥 '아르미쌀', 강진 '프리미엄호평', 해남 '한눈에반한쌀', 무안 '황토랑쌀'이 선정됐다.

○ 전라남도는 지속적 품질관리 및 상품 차별화 촉진으로 전남쌀의 품질 고급화를 유도하고, 13개 시·군에서 추천한 15개 브랜드쌀을 대상으로 분야별 평가를 실시 10대 브랜드쌀을 확정했다.

○ 평가는 시중 판매매장에서 2차에 걸쳐 시료를 구입, 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해 이뤄졌다. 품질 혼입률, 외관품위, 식미평가, 중금속 및 잔류농약검사, 서류현장평가 등 2개월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됐다.

○ 전라남도는 6월 정례조회를 통해 '2016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선정된 브랜드쌀에는 1천만원의 시상금과, '2016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로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각종 박람회 등 판매행사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 전라남도는 앞으로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대도시 대형유통매장을 통한 공동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대한민국 명품쌀' 평가 대상으로 추천할 예정이다.

* 출처 : 전라남도

광양시, 농가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 경보서비스 실시

– 농장별 날씨, 재해정보 등을 휴대폰과 인터넷 통해 미리 제공 –

○ 광양시농업기술센터는 5. 26.(목) 다압면사무소 회의실과 현지 농장에서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현장 연시회를 실시했다.

○ 이번 연시회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농업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사업소개, 조기경보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시연, 서비스 농가방문 및 현장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되었다.

○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사업은 농촌진흥청 국책사업으로 섬진강 하류 3개 시·군(광양·구례·하동)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 이번 사업은 농가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장별 날씨, 재해정보, 관리대책을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해 미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 현재 3개 시·군 5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광양시는 130농가가 서비스를 받고 있다.

○ 허남일 식량작물팀장은 이상 기상현상이 일상화되면서 농업 기상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번 연시회를 계기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관심 있는 농가는 광양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797 - 3325)와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로 신청하면 된다. * 출처 : 광양시

담양군, 블루베리로 6차산업 선도

– HACCP 시설 갖춘 가공시설 준공, 소비자 입맛 맞춘 블루베리 음료 판매 나서 –

○ 블루베리의 주산지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담양군이 HACCP 시설을 갖춘 가공시설을 준공함으로써 블루베리를 통한 6차산업을 확대해 가고 있다.

○ 이번에 준공된 블루베리 식품 가공시설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향토산업 육성사업인 '블루베리 6차 복합산업화 사업'의 완성사업으로 사업비 12억 7500만원이 투입된 연면적 1,137㎡의 규모의 시설로 HACCP 시설을 완비해 앞으로 웰빙 트렌트에 맞춘 '신선 블루베리 100% 착즙 음료' 생산하게 된다.

○ 최근 성인병 예방, 피로회복, 노화방지 등 블루베리의 다양한 효능에 대한 집중 조명이 이루어짐에 따라 블루베리 식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군은 연중출하 시스템을 갖춘 블루베리 식품 가공시설이 준공돼 블루베리 식품을 유통하는 데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최형식 담양군수는 "최근 한·중 FTA 공세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농업의 6차산업화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라며 '안정적인 농업소득 창출'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담양 농업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담양군의 블루베리 재배면적은 108ha(328개 농가)에 이르며 연간 600톤의 블루베리를 생산, 전남 최대의 블루베리 생산지역으로써 올해 100톤의 블루베리가 가공 식품화 돼 전국의 소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 출처 : 담양군

고흥군,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인기 최고

– 정부 3.0 핵심가치인 “소통, 협력, 공유, 개방” 반영한 국민 맞춤 서비스로 각광 –

○ 고흥군은 농번기철에 여성 농업인들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추진해 인기를 얻고 있다.

○ 군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부녀화로 농사일에 쫓기는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올해로 4년째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추진 운영하고 있다.

○ 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마을당 200만원씩 총 97개소에서 마을 공동급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10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사업비 지원조건은 마을회관, 취사시설 등 공동 급식시설을 구비해야 하며, 농업인과 가족을 포함해 총 20명 이상의 급식이 가능한 마을로 조리원 인건비로 100만원, 부식비로 1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 마을 공동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의 여성 농업인들은 “바쁜 농번기철에 점심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일손을 멈춰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좋은 평가를 내놓고 있다.

○ 군 관계자는 “본 사업 수요가 계속 늘어나 내년에는 200개소 이상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면서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은 매년 상반기는 1월 31일까지 하반기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 출처 : 고흥군

보성군, 조사료 수확 한창 사료비절감 효과 거양

○ 보성군(군수 이용부)은 지난 16일부터 관내 27개 조사료 경영체 작업단이 경종농가와 계약한 1천 300여ha의 조사료포에 대한 수확을 시작하여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군에 따르면 수확 중인 조사료는 지난해 9월 하순에서 10월 상순에 파종한 이탈리안라이그라스로 사료가치가 높아 초식가축 먹이로 최고로 친다.

○ 올해의 경우 지난겨울 온난한 날씨와 봄철 적정 강우량, 생육상황이 좋아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작년 대비 약 10% 정도 증수가 예상된다.

○ 또한 경종농가가 재배한 조사료는 경영체 작업단이 장비를 동원하여 예취 → 집초 → 곤포 → 랩핑 과정을 거쳐 곤포사일리지로 제조하여 생산된 곤포는 약 2만 6천여톤으로 계약물량은 축산농가에 공급된다.

○ 조사료 재배로 경종농가가 얻은 조수입은 약 2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축산농가도 연간 약 19억원의 사료비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 군관계자는 "조사료 재배사업은 2003년부터 정부에서 보리수매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다"며 "경종농가가 재배한 사료작물은 경영체가 작업하여 축산농가에 판매함으로써 경종농가의 일정 소득을 보장하고 축산 농가는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한 사업으로 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 출처 : 보성군

해남군, 곡식 말리기, 먼지 걱정 마세요

– 곡물 건조용 집진기 지원 –

○ 해남군이 곡물 건조 시 발생되는 먼지를 해소하는 집진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곡물 건조기용 집진기는 곡물 건조기 가동 시 발생하는 먼지를 모아서 제거하는 장치로 해남군은 올해 3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가에서 신청한 190기 전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 특히 곡물 건조용 집진기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군 시책 사업으로 1기당 195만원 중 50%를 군비로 지원하게 된다.

○ 군은 보리 수확철을 맞아 집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앞으로 곡물건조기 설치 시 집진기를 함께 설치하도록 행정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 군 관계자는 “곡물 건조시 발생하는 먼지로 이웃 간 민원이 발생하고, 마을 환경이 악화되는 등 문제점들을 집진기 설치로 크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올 봄 맥류 수확 시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 출처 : 해남군

영암군, 송아지 젖 먹이도 로봇이 하는 스마트 시대

- 농가에 로봇포유기 시범 설치 -

○ 영암군에서는 송아지의 포유 및 이유기의 사양관리 개선을 위해 영암군 관내 한우 및 젖소 2농가에게 로봇포유기를 시범 설치했다.

○ 축산도 스마트 시대라고 하기에 걸맞은 로봇포유기는 송아지의 체중 및 영양 상태에 따라 맞춤형 젖먹이를 해주고, 또한 송아지가 쾌적하고 편안한 곳에서 젖을 먹을 수 있도록 공간을 따로 마련해 건강하게 육성되어 폐사율 개선 및 육성률 향상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포유기 1대로 송아지 20~30두 포유관리가 가능해 송아지 젖 먹이에 필요한 노동력을 절감하고 포유기간이 약 14일 정도 단축되어 생산비 절감이 예상된다.

○ 로봇포유기를 도입한 시범농가는 “태어난 송아지가 3~4일만 초유를 먹고 1~2일 젖 먹는 훈련만 거치면, 약 1.5개월간 일령과 체중에 맞는 포유량, 포유횟수 등를 설정해 자동으로 젖을 먹이고 있어 송아지 성장과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영암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로봇포유기는 과식으로 인한 송아지의 설사 등 소화기 질병 발생을 예방 할 수 있고 반추위 발달도 향상시켜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어 지속적인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출처 : 영암군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대숲맑은 담양 딸기, 아시아 대륙을 넘어 유럽으로!

- 네덜란드 플레보베리와 '죽향·담향' 딸기 유럽 종묘수출 MOU 체결 등 -

○ 담양군은 지난 17일, 네덜란드 노르도스트폴더르(Noordoostpolder) 시청에서 최형식 담양군수와 윤영선 의장, 농업기술센터 장풍환 소장 등 담양군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네덜란드 육종회사 프레보베리와 딸기 신품종 '담향'과 '죽향'의 종묘 수출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우호 협력 관계를 확인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담양군에서 개발한 죽향·담향 품종을 비롯해 신품종 딸기의 세계시장 개척을 위해 공동 연구에 착수할 것을 약속했으며, 노르도스트폴더르 Aucke van der Werff 시장은 협약 후 환담을 자청한 자리에서 담양 딸기 종묘 수출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방면 교류를 통해 양 기관이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담양군과 뜻을 같이 했다.

○ 한편, 담양 딸기의 재배 적응 시험을 수행한 플레보베리 대표이사 Marcel Suiker는 이날 "죽향과 담향 품종은 유럽의 조생종 품종보다 개화기와 수확기가 빨라 조생종으로 가능성이 높으며, 죽향은 맛과 모양이 우수하고 신선도가 오래가 전세계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품종이다"라는 평가와 아울러 유럽시장에서 품종별 유통 전략을 제시했다.

○ 이어, 농업기술센터 이철규 박사는 “죽향과 담향 품종의 종묘가 유럽시장에서 유통되기 위해서는 종묘의 품질인증이 필수적이다”며 “이미 죽향과 담향은 네덜란드 종묘 품질 인증센터인 나크투인보우(Naktuinbouw)의 23개 항목의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 SEE(기본묘)와 SE(원원묘) 식물체를 증식해 네덜란드와 프랑스를 시작으로 유럽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 또한, 최형식 담양군수는 네덜란드 지역방송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서 최고 품질로 인정받고 있는 죽향 딸기를 세계적인 딸기로 육성해 나가는 데 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으며 윤영선 의장 또한 협약식을 통해 “담양 딸기의 세계 시장진출을 넓혀가기 위해서 의회 차원으로도 최선의 협력을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 앞으로 담양군은 ‘ICT 융복합 기반 전남 딸기 6차산업 실증모델 개발’ 연구과제 등을 통해 한국형 딸기 품질 인증묘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출용 딸기 신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 출처 : 담양군

동남아시아 농식품 시장 수출확대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 이하 ’aT)는 동남아시아 시장개척을 위해 5. 25. ~ 29.까지 태국 방콕식품박람회에 국내 식품업체 57개사가 참가 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13회째 개최되는 방콕식품박람회는 세계 최대 식품박람회인 독일 쾰른박람회(ANUGA) 주최사와 태국 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박람회로 8만㎡ 면적에 37개국, 1,919개사가 참여하는 동남아 식품 박람회로는 최대 규모이다.

○ 태국은 지정학적으로는 인도차이나반도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국은 물론 인도와 유럽 바이어의 방문율도 높아 동남아시아 시장의 거점이자 인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평가를 받고 있어 금번 박람회 참여는 동남아시아 및 인도 시장 개척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 금번 박람회에서는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 3.0의 핵심 가치인 '부처·기관간 협업'을 구현하여, 현지 시장의 수요가 높은 음료류, 즉석식품, 건강식품류, 소스류 등 유망한 품목들을 중심으로 지자체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와 함께 57개 농식품 업체가 통합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할 계획이며,

○ 특히, 인도 진출의 거점시장으로써의 태국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자 aT와 인도에 진출해 있는 CJ 오쇼핑간 MOU를 체결하여 유망 농식품의 인도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한국 관광과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태국인들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하여 "한국의 8도 관광지와 대표 K-Food 퀴즈" 이벤트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바이어와 참관객들을 대상으로 닭갈비·비빔밥·김밥 등을 시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 할 계획이다.

○ 박람회 개막일에 K-Food 홍보관에서는 두싯타니(Dusit Thani) 방콕 호텔의 수석 셰프인 필립 켈러(Philippe Keller)와 태국 인기 연기자인 누나(Noona)가 함께 태국식 돼지고기요리인 파카파오무쌉을 토핑으로 얹은 비빔밥을 시연할 계획으로 시연장면은 SNS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 아울러, 태국의 셰프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TUCC(Thailand Ultimate Chef Challenge) 행사와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대표 장류인 고추장 등을 활용한 K-Food 요리경연대회도 개최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방콕식품박람회 참가는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인도까지 시장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이며, "앞으로도 동남아 시장 개척을 위해 6월 미얀마 '미얀마식품박람회(Food Hotel Myanmar)' 및 9월 '인도 뭄바이 식품박람회(World of Food India)'에 참가하고 10월에는 태국에서 K-Food Fair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유기가공식품 수출확대 방안 찾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5월 24일 유기 가공식품 수출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해 식품기업 대표 등 20명과 함께 「친환경 6차산업 발전협의회」 가공, 수출 분과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0일에 개최된 친환경 6차산업 발전 협의회의 후속조치로, 본격화되는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 유기농식품의 수출시장 개척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를 펼쳤다.

○ 이번 회의에서는 각 기관들의 유기가공식품 지원사업 및 향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각 기업은 수출확대를 위한 기존 사업 보완, 제도개선 및 신규사업 과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설록다원을 통해 ‘15년 유기녹차 51톤을 수출하고, 금년에는 차(茶) 전문점 티바나(스타벅스)와 유기녹차 13톤 공급계약을 체결한 ㈜비전코리아 김창길 대표는

○ 정부와 녹차 주요 산지(하동·보성·제주·사천 등 7개 지역) 지자체에서 규모화된 가공공장을 구축하거나, 판매단가를 연간단위로 계약하여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 유기농 녹차(말차)의 소포장 및 미생물 컨트롤 가공공정 기술개발 등이 완료될 경우에는 비교적 큰 규모의 해외시장 개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또한, 분과회의에 참석한 ㈜웰팜의 이서형 대표를 포함한 많은 참석자들은 유기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 각 국가별 소비자 선호도 분석을 통해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전략 상품의 개발, 공급이 필요함에 따라, 인증통관체계 등을 포함한 해외시장 정보 제공과 현지화 상품 개발을 위한 맞춤형 RD 지원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 또한, 해외 온라인·모바일 쇼핑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에 대한 정부의 능동적인 관심과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협정 확대도 주문했다.

○ 향후, 정부에서는 유기농 전문 생산단지 조성(생산), IQF (Individual Quick-Frozen) 등 현지화 상품 개발(가공), 유기농 전문컨설팅단(수출)을 통한 인증통관홍보 등의 수출 지원방안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농수산식품, 해외 바이어와 729만 달러 계약

– 중국·미국·일본 등 7개 나라, 17명 초청 수출 상담회 성과 –

○ 전라남도는 최근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및 신규 거래선 확보를 위해 중국·미국·일본 등 7개 나라, 17명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729만달러 어치의 계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전남지역 64개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이 참가했다.

○ 수출상담 결과 고흥 한성푸드가 유자차 310만달러, 나주 완도물산이 조미김 83만달러, 나주 골든힐이 젓갈류와 김치류 80만달러, 담양 안복자한과가 한과류 40만달러, 나주 좋은영농조합법인이 기능성음료 37만달러, 목포 대창식품이 조미김 30만달러 등 18개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이 수출상담 계약을 체결했다.

○ 또한 현장에서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총 180여 건의 수출 상담이 진행되고, 바이어들의 수출기업 현지 방문을 통한 추가 상담도 이뤄져 추가 수출이 기대된다.

○ 이번 농수산식품 수출상담회는 전라남도 중소기업지원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전남지사, 전라남도 해외통상사무소 등과 연계해 이뤄졌다. 특히 전라남도 FTA 활용지원센터에서 관세사와 원산지관리사를 현장에 상주시켜 수출 애로사항 자문을 진행, 참가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 출처 : 전라남도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냉동 마늘·대파 편의제품 제조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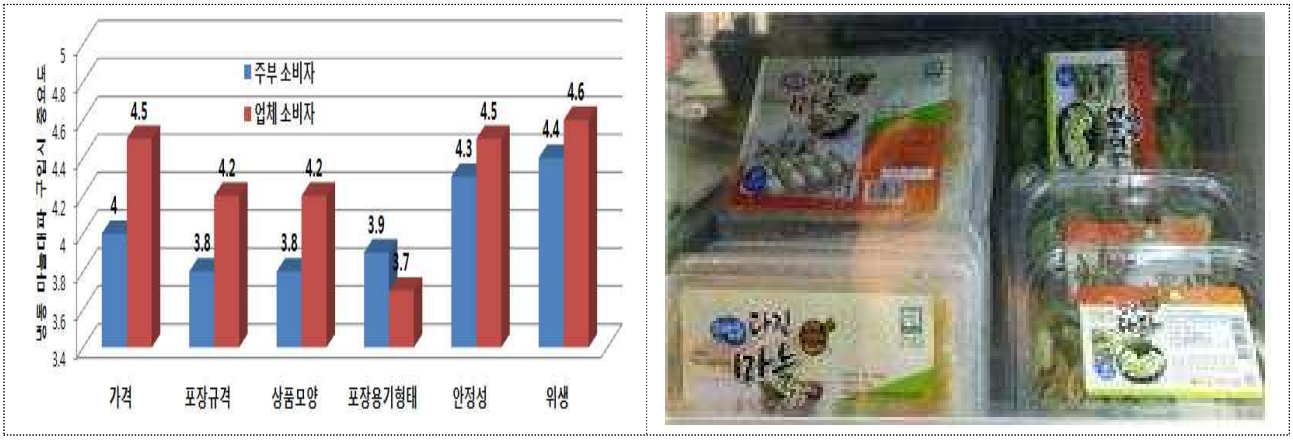
❑ 개발기술 내용(2015년 연구결과)

○ 마늘·대파 냉동 편의제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도

- 위생, 안전성, 가격, 포장용기, 포장규격, 상품모양 순으로 요구

○ 소비처별 구매시 선호하는 제품 규격

- 마늘 : 가정용 200g, 업소용 1kg, 대파 : 가정용 200g, 업소용 1kg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수급안정 마늘·대파 냉동 제품화로 소비촉진 및 가격안정화

○ 대파 마늘 생산량의 약 10% 냉동제품으로 유통시 연간 약 50억원 이상 부가가치 향상 효과

- 폐기율 감소, 쓰레기 감소 및 재배농가 안정성 소득 보장 등

* 연구자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오봉윤

다래 재배시 녹응애 예찰 및 친환경 방제 요령

❑ 개발기술 내용 (2015년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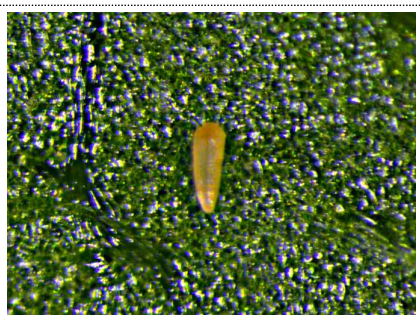
○ 녹응애는 5월 상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6월 상·중순이 발생 최성기, 7월 상순에는 피해 증상이 심하게 나타남, 이후 발생은 많지 않음

○ 예찰은 감수지나 20배 이상의 확대경을 이용하여 주 1회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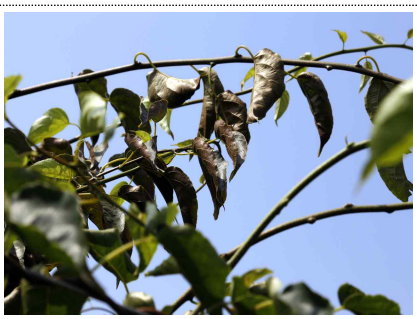
- 잎의 피해 증상은 뒷면이 갈변되고 위쪽으로 말리면서 심하면 낙엽
- 과일의 피해 증상은 녹이 슨 것처럼 갈변되고 생육 불량, 상품성 없음
- 육안으로 증상이 확인되면 이미 피해가 심한 경우로 조기 예찰 중요

○ 방제 시기는 발생이 확인되는 즉시 친환경 자재 살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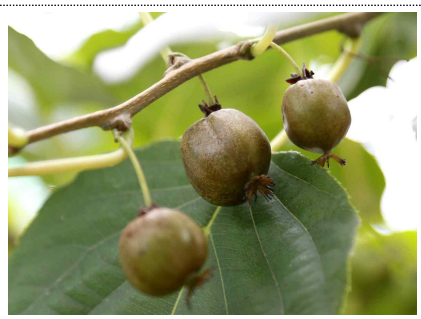
- 박메루플러스 500, 멸충대장골드 1,000, 선초 1,000, 응삼이플러스 2,000, 참청골드 1,000배액 등
- 과일과 줄기, 잎 뒷면에 약액이 골고루 묻도록 충분히 살포
- 1회 살포로 방제가 가능하나 방제 결과에 따라 추가 살포도 고려



녹응애



잎 피해증상



과일피해 증상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조기 예찰과 친환경 자재를 이용한 적기 방제로 상품성 및 소득 향상

* 연구자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마경철

전남 내륙과 해안지역 래빗아이 블루베리에서 해충발생 양상

❑ 개발기술 내용 (2015년 연구결과)

○ 총채벌레

- 발생시작 : 완도 4월 중순, 담양 4월 중순
- 최대발생 : 완도 6월 하순, 담양 6월 상순, 7월 중순

○ 블루베리혹파리

- 발생시작 : 완도 4월 중순, 담양 4월 중순
- 최대발생 : 완도 4월 하순, 5월 중순, 7월 상순, 담양 4월 중순, 5월 상·중순, 6월 중순, 7월 상순, 8월 하순, 10월 하순

○ 진딧물

- 발생시작 : 완도 4월 상순, 담양 4월 중순
- 최대발생 : 완도 4월 중순, 5월 하순, 담양 5월 중순

○ 끈끈이 트랩을 발아기부터 나무 주변에 설치하여 관찰되는 대로 방제하면 해충 피해 예방 가능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온난한 남해안지역과 내륙지역에서 해충별 발생 양상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제 대책 마련 가능

* 연구자 :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조혜성

홍차와 특용작물 이용 혼합차 제조 방법

❑ 개발기술 내용 (2015년 연구결과)

○ 홍차 제조 과정 : 여름, 가을 찻잎 → 시들리기(실내상온 24시간) → 비비기(25분) → 상온발효(실내상온 2~3시간) → 건조(120℃, 20분)

○ 홍차와 혼합 비율

- 홍차 70 + 특용작물 30%(어성초 10, 자소엽 10, 뽕잎 5, 민트 5)

○ 홍차와 특용작물 이용 혼합차 기호성 및 기능성

차종류	총아미노산 (%)	유리당 (%)	색도 (a)	관능평가 (점)	플라보노이드 (mg/100g)	아질산 소거능(%)
홍차 50 + 특용작물50%	1.7	3.75	1.1	49.3	1,360	19.6
홍차 60 + 특용작물40%	2.0	4.33	1.4	54.9	1,330	21.3
홍차 70 + 특용작물30%	2.3	4.40	1.6	61.3	1,460	23.4

※ 특용작물 50%(어성초 25, 자소엽 25), 특용작물 40%(어성초 15, 자소엽 15, 뽕잎 10), 특용작물 30%(어성초 10, 자소엽 10, 뽕잎 5, 민트 5)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여름, 가을 찻잎이용 특용작물 혼합 홍차로 부가가치 향상

- 엽차 8,000원/kg → 혼합홍차 20,000원/kg (250% 증)

○ 년중 다양한 혼합차 제품생산 및 차 소비량 증대 : 발효차 150억원 수입 대체

* 연구자 :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 최 정

벼농사 잡초방제 '제초제 선택과 물관리'가 중요

- 도내 제초제 저항성잡초 피, 물달개비 등 52천ha 발생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농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초제에 저항성이 생긴 잡초를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는 써레질할 때(모내기 전 3~5일)와 모내기 후 12~15일 두 차례에 걸쳐 적정 제초제를 살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 현재 벼농사에서 발생하는 잡초종은 약 28과 90종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로 20~30여종만이 벼 생육에 영향을 미친다. 2011~2012년에 제초제 저항성잡초 발생면적을 전국적으로 조사한 결과, 176천ha로써 전국 논면적(친환경 재배논 제외)의 22%에 달했으며 전남지역에서 52천ha로 타 도에 비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제초제 저항성잡초는 1999년도에 서해안 간척지 논에서 우점한 물옥잠이 설포닐우레아계 제초제에 대한 저항성 잡초로 확인된 이후 현재까지 물달개비, 알방동사니, 올챙이고랭이, 피 등 15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남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저항성잡초는 매년 농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이들 잡초를 방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년도 논에서 문제시 된 잡초 종류에 따라 방제 가능한 제초제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제초제의 사용 시기를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 벼농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 제초제의 처리 시기는 일년생 화본과 잡초 피의 엽령에 따라 제초제의 종류가 다르며 토양처리 제초제는 피 3엽기까지만 방제할 수 있어 중기제초제(써레질 후 10~15일) 및 경엽처리제초제(이앙 후 30일)는 적정 사용시기보다 2~3일 정도 앞당겨 처리해야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다.

○ 아울러, 제초제 처리 전과 후의 물관리이다. 논에 사용하는 제초제는 물이 없으면 잡초를 방제하기 어려우므로 적어도 논물을 4~5cm 정도의 깊이로 대어주어 수면 위로 흙이 보이지 않게 한 후 제초제를 살포해야 하고, 약제를 뿌린 후 적어도 4~5일 정도 수심을 유지해야만 토양 표면에 균일한 처리층이 만들어져 만족할 만한 잡초 방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전남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에서는 “최근 벼농사에서 수량 감소는 잡초피해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잡초 발생초기에 방제를 놓치게 되면 관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벼 이앙 전후에 잡초방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논 콩 재배 물 관리, 입지 조건에 따라 다르게 하세요

– 농촌진흥청, 평지·계단식·성토한 논 등 배수관리 방법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논에서 콩 재배를 위한 입지조건별 배수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 논에서 콩을 재배하면 밭 재배보다 물주기가 쉽고 수확량이 많다. 하지만 습해로 인해 검은뿌리썩음병, 역병, 시들음병이 발생할 수 있어 물 관리가 중요하다.

○ 습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름철 집중 호우 시 침수 우려가 없고 비가 그친 뒤 24시간 내에 물 빠짐이 가능한 논을 선택한다.

○ 또한 평지, 계단식, 성토한 논 등 입지 조건에 맞게 물 관리를 한다.

○ 평지 논은 가장자리에 50~80cm 정도 깊은 배수로 반드시 설치해 물이 빠져 나갈 길을 만들고 높은 이랑에 1열 재배하는 것이 좋다.

○ 또한, 가까운 이랑으로 물이 빠져 나가지 못하므로 논 중간에 10~15m 간격으로 이랑 사이에 깊고(20~30cm) 넓은(60~80cm) 배수로를 설치해 물이 잘 빠지도록 한다.

○ 계단식 논은 윗 논과 가까운 곳에서 물이 스며 나오므로 물이 나오는 곳에 배수로를 설치하고 이랑을 1휴 1열, 또는 1휴 2열로 높게 해준다.

○ 성토한 논은 두 개의 층 사이에 수분 이동이 안돼 습해를 받기 쉽고 콩 뿌리가 깊이 자라지 못해 생육이 억제되고 쉽게 쓰러진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토파쇄기를 이용해 속흙과 겉흙을 섞어 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콩 수량을 약 35% (226kg/10a → 305kg) 높일 수 있다.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콩 중에 논 재배에 알맞은 품종으로 콩알이 굵은 장류, 두부용 대원·태광·대풍·우람·새올과 밥밑용인 청자·청자3호 등이 있다.

○ 농촌진흥청은 콩을 비롯해 조·수수·기장 등 밭작물 재배농가 간 수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밭작물 수량 올리는 핵심기술' 책자와 안내문을 제작해 보급했다.

○ 이 책자는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http://lib.rda.go.kr)에서 PDF로 볼 수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밀, 수발아 주의해 수확시기 결정하세요

– 최상조건은 수분함량 20% 이하, 비 예상되면 성숙기에 바로 수확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품질이 좋은 밀 생산을 위해서 이삭 싹 나기(수발아) 예방하고, 특별히 주의해서 수확시기를 결정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이삭 싹 나기는 수확 전 아직 배지 않은 곡식의 이삭에서 낟알이 싹 트는 현상으로, 밀의 경우 가공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 이삭 싹 나기로 인해 빵용 밀은 반죽이 끈적거리고 빵의 부품성과 조직감이 떨어지고, 국수용 밀은 면발의 탄력이 떨어지며 식감이 나빠진다.

○ 밀은 이삭 전체가 누렇게 변하고 종자수분이 25%대로 떨어졌을 때부터 수확이 가능한데, 성숙기가 4~7일정도 지나 수분이 20%대 아래로 떨어졌을 때 수확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 때 수확하는 밀이 보기에 가장 좋고 껍질 등 협잡물 혼입 정도도 가장 낮다.

○ 밀 성숙기는 기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삭이 팬 후 40~45일 경이다. 보통 남부지역은 6월 초순, 중부지역은 남부지역보다 1주일 정도 늦다.

○ 하지만 수확시기에 3일 이상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성숙기에 곧바로 수확해야 한다.

○ 특히 '조경밀'은 이삭 싹 나기에 따른 품질변화가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종자가 충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한 밀은 콤바인 탈곡 시 껍질이 이송 스크루를 막히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속도를 한 단계 낮춰 수확해야 한다.

○ 또한 건조기를 사용할 때에도 40℃ 이하의 낮은 건조온도에서 송풍량은 최대로 해야 품질변화가 적고 종자이송관의 막힘을 방지할 수 있다.

○ 특히, 이삭 싹 나기가 발생한 밀은 건전한 밀과 분리, 별도 관리해 전체 품질이 나빠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이춘기 수확후이용과 연구관은 "밀 수확시기가 장마철과 겹칠 경우는 이삭 싹 나기에 따른 피해가 막대하므로 일기예보에 주의를 기우려 적정 수확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소똥, 수거 뒤 바로 고체연료 만든다

– 농촌진흥청, 제조 기간과 비용 줄인 새 기술 개발... 산업화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소의 배설물을 수거한 뒤 바로 고체연료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 우리나라 가축분뇨 발생량은 한 해 4,623만톤(2014년 말 기준)으로 이 중 89.7%가 퇴·액비로 사용되고 있다.

○ 가축분뇨 처리는 퇴·액비 관리 강화와 지역단위 양분 총량제 시행으로 축산업의 부담이 되고 있다. 때문에 분뇨를 고체연료화하면 환경 부담은 줄이고 유용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수분이 60% 이상인 소똥을 1~2일 만에 직경 10~20mm 이하의 둥근 환 모양 펠릿으로 가공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 축사에서 갓 수거한 소똥을 압착 방식으로 수분을 줄이고 고르게 섞은 뒤, 환 모양 펠릿화 장치에 넣고 가공하면 고체연료가 완성된다.

※ 가공된 소똥 고체연료 모습

▲ 직경 5mm ▲ 직경 10mm ▲ 직경 20mm

○ 이 방법은 축사에서 나온 똥을 바로 가공할 수 있어 분뇨가 농가에 머무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만드는 기간이 짧고(기존 1~2개월) 방법이 단순해 인건비와 운영비, 부자재비용 등을 아낄 수 있다. 시설비도 기존 방법보다 약 20~30% 가량 저렴하다.

○ 또, 입자를 작게 만들어 건조가 빠르고 쉽게 가열된다. 둥근 환 모양으로 저장은 물론 다루기 쉽다.

○ 이번 기술을 적용하면 소똥 1톤으로 약 300~400kg의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다. 발열량은 1kg당 3,000kcal 이상으로 무연탄의 70% 수준이다.

○ 지난해 7월 마련된 고시에 따르면 앞으로 고형연료는 시멘트 소성로,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 한 해 발생하는 소똥 1,997만 3천톤(한·육우 1,408만 7천톤, 젖소 588만 6천톤(2014년 말 기준)) 중 일부를 고체 연료화해 기존 제철, 발전분야에 쓰이는 석탄 소요량의 1%만 대체해도 약 1,07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축산농가의 환경 부담완화와 기존 가축분 자원화 시설의 고정비용, 운영비용 대체효과를 고려한다면 경제적, 사회적 효과는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은 기술을 특허출원 한 뒤, 산업체에 이전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최유림 축산생명환경부장은 “이번 기술은 국내 가축분 고체연료화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며, “축산농가에 부담이 돼 왔던 환경관련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에너지 자원까지 생산할 수 있어 농가 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7. 정책 동향

◈ '16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15개소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2016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대상자 15개소를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주산지 중심으로 농가를 조직화, 규모화하여 공동경영체 기반을 바탕으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생산을 유도하고 통합마케팅 참여 조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올해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내부 및 외부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서면심사 및 현장점검, 발표평가를 통해 1차로 사업을 신청한 33개 경영체 중에 2개소가 선정(3. 15.)되었고, 2차로 사업을 신청한 22개 경영체 중에 13개소가 선정(5. 24.)되었다.

○ 선정된 경영체에는 2년 동안 생산농가 조직화 교육 및 컨설팅 비용 등 역량강화, 기계류 등 생산비 절감, GAP 인증 시설 등의 설치비 등 품질관리를 위한 비용이 지원된다.

○ 제주도는 전국 재배면적의 60%가 넘는 당근 주산지로 제주도 구좌농협은 공선출하회를 중심으로 한 당근농가 조직화, 규모화를 통해 품종 및 재배단계 통일, 농가 교육을 통한 공선출하회 강화,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안정적 물량조달 체계 구축으로 고품질 당근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세척당근 외식업체 거래 확대 등 신시장 개척으로 당근 소비 확대를 유도하고자 한다.

○ 전라남도 고흥은 전국 2위의 마늘 생산지로 녹동농협은 작목반별 공동작업단 공선회 구성으로 농가를 조직화하여 상품성 높은 단일 우량품종 개발 및 친환경 재배기술 이용을 통해 공동 농작업을 확대하고, 고흥군·녹동농협·농업기술센터·작목반 등으로 구성된 주산지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 고흥 마늘의 발전방향 논의 및 수급 조절의 역할까지 수행할 계획이다.

○ 충청남도 천안 입장농협은 한·칠레, 한·미 FTA체결에 개방에 대응하여 수출전문 공선출하회를 중심으로 한 농가 조직화를 통해 농기계 공동사용을 통한 생산혁신, APC를 통한 유통 혁신 및 포도 품질향상, 중국·동남아 등 해외 수출시장의 선도적 개척으로 포도 내수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 농식품부는 선정된 1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중에 지자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하여,

○ 맞춤형 컨설팅, 관계자 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공동경영체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며, 연말에 사업대상자 연차평가 및 우수사례 홍보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이 사업은 FTA체결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을 갖춘 조직화, 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는 정책으로,

○ 공동생산에 따른 비용 절감 및 품질 경쟁력 강화, 통합마케팅조직과의 계열화를 통해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고, 주산지협의체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 자율적 수급 조절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전남도, 밭작물공동경영체 지원 전국 최다 선정

- 고흥 녹동농협, 해남 산이농협 등 6곳에 60억원 지원 -

○ 전라남도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올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에 15개소 가운데 6개소가 포함돼 전국 최다 선정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은 올해 농식품부 신규 사업이다. 주산지 중심으로 농가를 조직화·규모화해 밭작물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를 유도하고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 선정된 밭작물 경영체와 품목은 고흥 녹동농협 마늘, 해남 산이농협 밀, 곡성 옥과농협 사과, 무안 청계농협 밀, 영암 신북농협 가을무, 신안 임자농협 대파다.

○ 사업비는 개소당 10억원으로 1년차 3억원(30%), 2년차 7억원(70%)이며 오는 2017년까지 6개소에 국비 30억원을 포함해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선정된 경영체는 생산농가 조직화와 컨설팅 비용 등 역량 강화, 생산비 절감, 기타 품질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가 지원된다.

○ 최향철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앞으로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을 갖춘 경영체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며 “공모사업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품목별 주산지 위주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강화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조기 정착 총력

– 전남도, 25일 지도단속 공무원 직무역량 교육 –

○ 전라남도는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한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된데 이어 2017년 1월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25일 지도단속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교육에선 원산지표시 법률 개정사항과 원산지표시 단속 절차, 기법, 사례 및 민원 대처 방법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전문 강사가 교육을 진행했다.

○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은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에 콩·오징어·꽃게·참조기를 추가하고, 표시판 크기를 기존의 2배로 확대하며, 게시 위치도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 또한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경우 기존에 원료 배합비율 2순위 까지 표시하던 것을 3순위 원료까지로 강화하고, 배달앱 등의 조리음식 통신판매 시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는 등 방법을 개선했다.

○ 이춘봉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시·군 원산지 표시 담당자들이 법률 개정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교육했다"며 "올해 말까지 농수산물 판매자와 소비자에게도 적극 홍보해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장마철 대비, 가축 매몰지 정부합동 안전점검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는 장마철 및 하절기 집중호우에 대비, 5. 30.~6. 24.까지 4주간 구제역AI 등 가축 매몰지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50명이 8개 정부합동점검반(3인 1조)을 편성, 매몰지 안전점검 및 지자체의 매몰지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이번 정부합동점검은 '16.4월말 기준 매몰지 1,075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매몰지로의 빗물 유입 차단, 침출수 관리, 매몰지 성토 및 함몰 시 후속조치 등 매몰지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 점검 1~2주차에는 전국 1,049개 매몰지 전체에 대해 지자체에서 자체점검을 3~4주차에 정부합동점검반이 도별 3개 시·군, 시·군별 5개소씩 총 143개소에 대해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 시정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이번 정부합동점검 시 "매몰지 관리 실명제" 및 "매몰지 특별관리단" 운영 등 지자체의 상시적인 매몰지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매몰지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책임의식을 고취한다.

○ 또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매몰지가 관리되도록 관련 제도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8. 해외 농업정보

◈ 농업진흥청, 텍사스 A&M 대학 갈등 및 개발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 '농촌 서비스 센터' 설립... 아프리카 지역에 농업기술 협력사업 추진 -

○ 농촌진흥청(이양호 청장)은 27일 하워드버핏재단(HGBF)이 지원하는 텍사스 A&M 대학 갈등 및 개발센터(Center on Conflict and Development at Texas A&M Univ.)와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농촌진흥청과 텍사스 A&M 대학 갈등 및 개발센터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경감, 식량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하워드버핏재단이 후원하는 연구, 제도개선, 역량개발 등을 공동추진 하기 위한 협력관계 구축이다.

○ 농촌진흥청은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이하, KAFACI)를 2010년에 발족한 이래 아프리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보급하는 농업연구 및 농촌지도와 관련된 협력 사업을 수행해왔다.

○ 텍사스 A&M 대학 갈등 및 개발센터는 선도적인 국제개발기관으로써 하워드버핏재단 및 미국 국제개발처와 협력해 연구와 실용적인 해결방법을 통해 소외된 지역의 생활 개선에 전념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하워드버핏재단의 기금으로 텍사스 A&M 대학 갈등 및 개발센터와 협력해 아프리카 지역에 '농촌 서비스 센터(가칭)'를 설립하는 등 KAFACI와 공동으로 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미국 FDA 영양성분표 최종 개정안 확정

– 1회 제공량 현실화 · 첨가당 표기· 나트륨 기준치 축소 등··시행시기 논의 중 –

○ 미국 정부가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표기했던 식품 라벨의 성분 표시를 실제 섭취량으로 현실화하고, 열량표기도 지금보다 크게 하도록 한 식품 라벨링 규정을 최종 발표했다. 이에 우리 대미 농식품 수출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현재 통용되고 있는 미국의 '식품영양정보 표시 라벨링 규정'은 지난 1993년 도입된 것으로 지난 2006년 트랜스 지방 표기법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근 2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에 현지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규정이 많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미국 정부는 지난 2014년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식품 영양성분 표시규정 개정안'을 만들고,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최근 최종안을 발표했다.

○ 최종 확정된 규정의 가장 큰 변화는 식품 라벨의 표기기준을 현재의 1회 제공량(1 serving size)에서 실제 섭취하는 양으로 현실 상황에 맞춰 표기하는 것이다. 이는 식품업체들이 제품의 열량을 낮추기 위해 권장 섭취량을 낮추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 일례로 아이스크림의 경우, 현재는 1파인트에 200kcal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면 2회분에 400kcal로 표기해야 한다. 칼로리를 표기하는 문체 크기 및 굵기를 보다 명확하게 표기해 소비자들이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일 권장량과 칼로리에 관한 추가설명도 함께 덧붙여야 한다.

○ 이 외에 식품에 대한 설탕 함량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하기 위해 설탕 첨가량을 표기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비타민과 칼슘, 철분, 칼륨 역시 함량 수치를 정확히 게재해야 한다는 항목도 생겼다.

○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미국 내부의 의견수렴을 거친 최종안인 만큼 조만간 발효될 것으로 예상, 우리 수출업체들이 관련규정을 꼼꼼하게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 개정된 규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aT 농수산식품수출정보 홈페이지(www.kati.net) 내 '주요국 모니터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본은 미국 FDA 홈페이지 /PressAnnouncements /ucm387418.htm) 또는 (http://www.foodnavigator-usa.com/Trends /Nutrition-Facts /FDA-Nutrition-Facts-panel-final-rulesubmitted-to-OMB)에서 확인 가능하다.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① 제공량(serving size) : 글자크기를 더 크고 굵게. 제공량은 실제 소비되는량을 반영하여 작성

② 칼로리(calorie) : 글자크기가 크고 굵게되어 읽기 쉽게 변함

③ 일일값(daily value) : 새로운 영양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됨

④ 추가된 설탕(added sugars) : 새롭게 추가된 부분으로 제품에 추가된 설탕함유량을 적어야 함

⑤ 실제적 함유량(actual amounts) : 비타민 D, 칼슘, 철분, 칼륨의 실제적 함유량 및 일일 값 대비 퍼센트

⑥ 각주(footnote) : 퍼센트 일일값(% daily value)이 바뀌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6. 05. 30.(시카고 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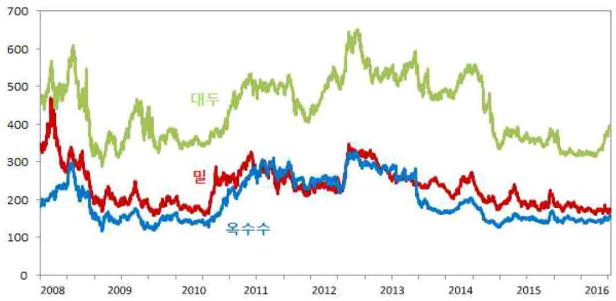
미국의 홀리데이주간에 앞서 대폭 상승한 옥수수 선물가격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단위 : US$/ton

구분	기준일 ('16.5.27)	전일대비	전월평균 ('16.4)	2015 평균
밀	176.88	–	173	186
옥수수	162.43	▲1.1%	147	148
대 두	399.18	▲0.6%	354	347

주)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대두: 7월물) 정산가격임.



밀 선물시장 시황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변화 없는 수준에서 마감함.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 의하면 밀은 매도 커버와 사료용 밀 사용 증가에 대한 기대에 의해 뒷받침되어짐. 이번주 알제리의 국가 곡물 위원회는 듀럼밀 약 130,000톤을 사들였음. 센트럴 텍사스에서 남서쪽 오클라호마 까지 약간의 이른 운반으로 인해 미국 남부평원의 밀 수확은 진행 중에 있음. 그러나 습한 기후로 인해 상황이 계속적으로 딜레이 됨.

옥수수 선물시장 시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 의하면 미국의 3일간 휴일에 앞서 미국 공급에 대한 수출 수요와 스퀘어 포지션으로 인해 1% 이상 상승하였음. USDA에 의하면 개별 수출자들은 미국산 옥수수를 알려지지 않은 국가에 130,000톤 팔았으며, USDA는 지난 이틀간 미국산 옥수수 383,000톤에 대한 판매를 확정지었음.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 포함된 미국의 시장들은 메모리얼 홀리데이인 월요일 문을 닫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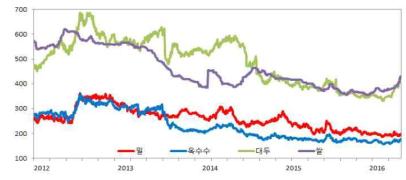
대두 선물시장 시황

미국산 대두의 선물가격은 긴 미국의 연휴 주간에 앞서 매도커버와 스퀘어 포지션으로 인해 금요일 상승하였음. 그러나 대두박 선물가격의 하락은 시장진전을 완화시켰음.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 의하면 대두박은 미톤 당 $402.60에서 $7 감소하여 마감함. 지난 한 주간 7월물 대두 가격은 1.1% 상승하였음. USDA에 따르면 개별 수출업자들은 중국에 미국의 대두를 110,000톤 팔았으며, 그 외 알려지지 않은 국가에 100,000톤의 대두박을 팔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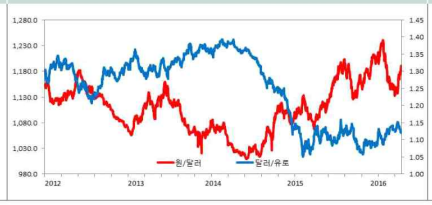
관련동향

- 옥수수 베이시스로 인한 수출수요 증가와, 밀과 대두의 수출 프리미엄 변화
- 27일 국제유가는 미 달러화 강세, 유가 상승에 따른 생산증가 우려 등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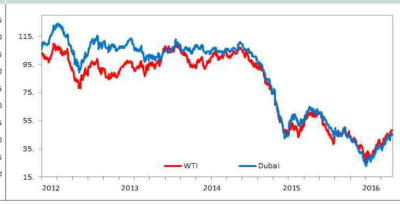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198	▲2.6%	환율	원/달러	1,181	▼0.4%
	옥수수	181	▲1.1%		달러/유로	1.1193	▼0.1%
	대두	413	▼0.5%	국제유가	WTI	49.33	▼0.3%
	쌀	427	–		Dubai	45.31	▼0.9%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7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6.5.26(수출가격), '16.5.27(환율), '16.5.27(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Daily World Grain Report

E-mail : sonmy@krei.re.kr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2016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개최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농업인들에게 확산하기 위한 2016년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를 실시한다.

○ 참가자격은 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이면 참가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5. 11. ~ 6. 24.까지이다.

○ 참가방법은 농업기술원 누리집(www.jares.go.kr)에 등록된 양식으로 우수 사례를 작성하여 각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 경진분야는 ICT 활용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역 내 문화 확산, 스마트팜 활성화, 창업 아이디어 경진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 경진대회 우수사례는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6월 30일에 우수자 15명을 선발하여 7월 중에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농업경영연구소 임경호 소장은 ICT 융복합 기술 우수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전남 농업인들에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 문의 : 061) 330 ~ 2582 전남농업기술원 김덕현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주간
전남농업정보 87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